

# 영광군, RE100 산단 조성 '속도'

후보지 등 기본계획 용역 착수 단계별 사업화·수용성 확보 등 로드맵 마련·기업 유치 계획

영광군이 RE100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영광 RE100 산단 조성 후보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신산업 육성 전략과 RE100 정책 동향 분석을 비롯해 영광군의 혁신성장 경쟁력 분석, 신산업 발굴 방안, 입주 수요 조사 계획 수립, 산단 조성과 비교·분석 방안 등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과업 수행 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RE100 산단 조성 방안과 단계별 사업화 전략,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운영 계획 등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실과소장 질의응답 시간에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방향 설정과 용수 공급 방안, 재생에너지 구입 단가 등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7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 RE100 산단 조성 후보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실행 가능한 RE100 산단 조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RE100 산단 조성은 기후 위기 대응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중央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전략적 입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기본구상을 마련해 영광군을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 HD현대삼호-HD현대로보티스 '스마트 조선소' 구축 협력

HD현대삼호가 HD현대로보티스와 손잡고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위한 제조 혁신에 나선다.

HD현대삼호는 22일 회사 본관에서 HD현대로보티스 김완수 대표와 양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 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사는 협약을 통해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현장 검증 및 표준화 ▲조선업 특화 로봇 기술 연구 등 단계별 협력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추진한다.

HD현대삼호의 조선 생산 전문성에 HD현대로보티스의 로봇·비전·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생산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공정 단축 및 품질 향상 등의 성과를 창출해 글로벌 조선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수 대표는 "이번 협약은 로봇 솔루션의 적용 범위를 조선·중공업 영역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그룹 내 스마트 조선소 혁신을 가속하고 기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을 대표는 "조선산업의 미래는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생산체계에 달려 있다"며 "양사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현장 중심의 혁신을 가속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목포시, 기초연금 사업 유공기관 '우수'

수급·신청률, 부정수급 환수 실적, 급여 예산 집행 성과 등

목포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초연금 수급률과 신청률, 부정수

급 환수 실적, 급여 예산 집행 성과 등 여타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진행됐다. 목포시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제도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기준 목포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6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약 75.9%에 해당하는 3만4000여명이 기초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무안군, 24일 뮤직 콘서트·밖으로 나온 영화관 등 진행

## 제철 맞은 '신안 섬초' 출하에 농가 웃음꽃

비금도, 하루 2000여 상자…8kg 도매가 전년비 1만원 올라

제철을 맞은 신안의 명품 시금치 섬초 출하가 한창이다.

작황도 좋은 데다가 값도 올라 재배 농민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오르고 있다.

신안 비금도에서 따르면 섬초 주산지인 비금도에서는 요즘 하루에 8kg들이 2000여 상자까지 서을 가로등 시장 등으로 출하되고 있다.

가격은 8kg 한상자에 평균 5만원(최고가 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원 올랐다.

계르마늄 성분이 가득한 노지 땅에서 자라 다른

지역 시금치와 달리 항암 성분과 영양 성분이 많고 단맛이 강한 섬초는 내년 4월 초까지 출하된다.

비금지역 섬초 재배면적은 700여 농가 450㏊로 작년 94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신안 비금도 관계자는 "올해 시금치 작황은 좋은 편으로 수확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마저 좋다"면서 "지금도 맛있지만, 찬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 쌀여다 녹기를 반복한 후 깊어진 그 맛은 일품"이라고 말했다.

〈신안〉 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해남 어르신들이 그린 '마을 이야기'

농어촌협약지원센터, 24일 전시회…70~80대 주민 498명 참여

해남의 어르신들이 6개월간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과 지도가 한자리에 선보인다.

해남군 농어촌협약지원센터에 따르면 오는 24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다목적실에서 '땅끝 천년의 마을 콘테스트'와 동반 행사인 마을 홍보관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이번 행사는 '여름저점, 한낮저점, 활짝 마을하기'를 주제로 해남 지역 12개 읍면 12개 마을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와 유산을 비롯해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을 전술하게 그렸다.

주민들은 나무, 집, 강아지 등 마을 풍경을 비롯해 딸기 농사, 낚시질, 배추 수확 등 일상의 풍경을 그렸다. 꿈에서 본 세상이나 미래 마을 모습을 담은 희망적인 그림도 눈에 띄었다.

대부분 70~80대의 고령들로 난생처음 그려 다소 서툴고 맞춤법도 틀린 글씨도 많지만, 생생한 삶의 단면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12개 마을에서 498명이 참여해 손으로 그린 엽서와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지도가 선보인다.

홍보관에는 마을의 일상과 삶을 그대로 옮겨온



해남군 어르신들이 마을 이야기를 담아 그린 그림과 지도. 〈해남군 농어촌협약지원센터 제공〉

시장 형태로 구성돼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진수 해남군 농어촌협약지원센터장은 "마을을 지탱해온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전술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며 "내년부터 14개 읍면에서 마을 이야기 지도와 그림 그리기를 추진해 전체 515개 마을을 기록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남〉 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남악 중앙공원서 연말 거리문화예술제

무안군, 24일 뮤직 콘서트·밖으로 나온 영화관 등 진행

무안군이 24일 남악 중앙공원 일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연말 문화 다품이로 무안거리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예술제는 '문화 캔버스 도시, 예술로 물들다'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 지역예술가와 군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행사로 마련됐다.

일상 속 거리 공간을 예술로 채워 군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행사는 ▲무안군립국악원과 무안국악협회가 선보이는 '국악한마당' ▲청소년이 꾸미는 '꿈다무 콘서트' ▲어린이를 위한 '책 읽어주는 산타할머

니' ▲밖으로 나온 영화관 등으로 진행된다.

가수 경서, 정자숙과 뮤지컬 가수 루이스초이, 박소연 등이 출연하는 뮤직콘서트도 열린다.

작가들과 함께하는 캡·접시 만들기, 크리스마스 리스(원형 화환) 만들기, 캘리그라피 달력만들기, 솟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김산 무안군수는 "다양한 거리 예술의 매력과 특별한 연말 추억을 선물하고자 한다"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남악 중앙공원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안〉 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한국형 보험법 제정  
전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증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